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스승님,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 성스러움을 꿋고 지혜를 버려야 하며, 인(仁)을 꿋고 의(義)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네.
3. 그렇군요. 그것 이외에도 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까?
4. 소박함을 지향하고 질박함을 보존하며,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네.

- ① 사악한 본성을 교화하여 욕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인간의 도리를 중시하고 정명(正名)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 ③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무지하고 무욕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
- ④ 시비선악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 탐구에 힘써야 한다.
- ⑤ 도(道)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 물질문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2. 고대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정의로운 인간은 참된 의미에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잘 조절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고 통솔하며, 또한 자기 자신과도 화목함으로써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개, 욕망을 전체적으로 조화시킨다.
을: 행복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여러 선 중에서 최고의 선이다. 따라서 행복은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며, 모든 행동의 목적이다.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려면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 ① 갑: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은 이상 국가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 ② 갑: 지혜는 이성의 탁월함으로 국가의 모든 계층에게 요구된다.
- ③ 을: 중용은 옳은 행위로 점차 나아가게 하는 실천적 지혜이다.
- ④ 을: 행복은 영혼의 욕구와 관련된 품성적 덕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 ⑤ 갑과 을: 인간은 이성적 능력의 발휘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3. 고대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군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정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禮)에 따라 그것을 실행한다. 예에 어긋나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
을: 사람은 본래 욕구를 지니고, 욕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다투게 되며, 그래서 혼란스럽고 곤궁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선왕이 예의(禮義)를 제정하여 책무를 나누고 욕구를 만족시켰다.

- ① 갑: 도덕적 삶에 필수적인 예는 마땅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 ② 갑: 예의 실천에서는 내재된 덕성보다 형식적 절차가 중요하다.
- ③ 을: 백성은 선왕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예법을 제정해야 한다.
- ④ 을: 타고난 도덕적 본성은 예법을 통해야만 보존되고 함양된다.
- ⑤ 갑과 을: 백성의 생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의 궁극적 목표이다.

4. 다음은 사회사사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불황은 기업의 투자 감소와 가계의 소비 감소에 따른 유휴 수요의 부족이 원인입니다. 정부는 국·공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부족한 유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불황은 기업의 과잉 투자에 따른 수익률 저하와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감소가 원인입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정책을 통해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개입하려는 것은 인간의 치명적 자만입니다.

갑 을

<보 기>
ㄱ. 갑: 정부는 경기 침체의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
ㄴ. 을: 경쟁은 권력의 자의적 간섭 없이 경제 행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ㄷ. 갑과 을: 정부는 계획 경제를 도입하여 시장 실패를 극복해야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사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적 이성의 빛은 자연법에 속하는 것인데, 이는 신의 빛이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영원법에 대한 이성적인 피조물의 참여라는 것이 명백하다.

- ① 인간은 이성적 논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 ② 신앙과 이성은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 ③ 영원법에 기초한 자연법은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다.
- ④ 자연법의 제1원리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의해 구체화된다.
- ⑤ 완전한 행복은 현세에서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누릴 수 있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그는 나중에야 비로소 무엇이 될 수 있고, 또 그 스스로 되고자 하는 존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을: 건강, 부, 배움과 마찬가지로 정직, 근면, 정의와 같은 도덕적 가치들도 정해진 목표를 표현하는 선이 아니다. 그것들은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성장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 ① 갑: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절대자에게 의지해야 한다.
- ② 갑: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해야만 자신의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 ③ 을: 고정된 성과나 결과보다는 개선과 진보의 과정이 중요하다.
- ④ 을: 지성적 탐구 과정을 통해 불변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합리적 추론으로 도출한 보편적인 윤리 규범을 따라야 한다.

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정념과 이성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엄밀하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한다.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어떤 임무도 탐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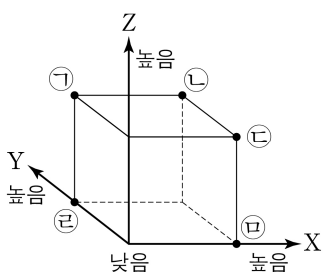
○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쾌락이나 불쾌의 공감적 움직임을 일으킨다.

- ① 이성은 도덕적 선악을 판별함으로써 정념에 봉사한다.
- ② 이성은 불쾌의 감정을 통제하여 정념의 안정에 기여한다.
- ③ 이성은 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의욕할 수 있다.
- ④ 사적인 행복을 고려하는 경우에만 쾌락의 감정이 일어난다.
- 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는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8.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그것을 생각하는 나는 필연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진리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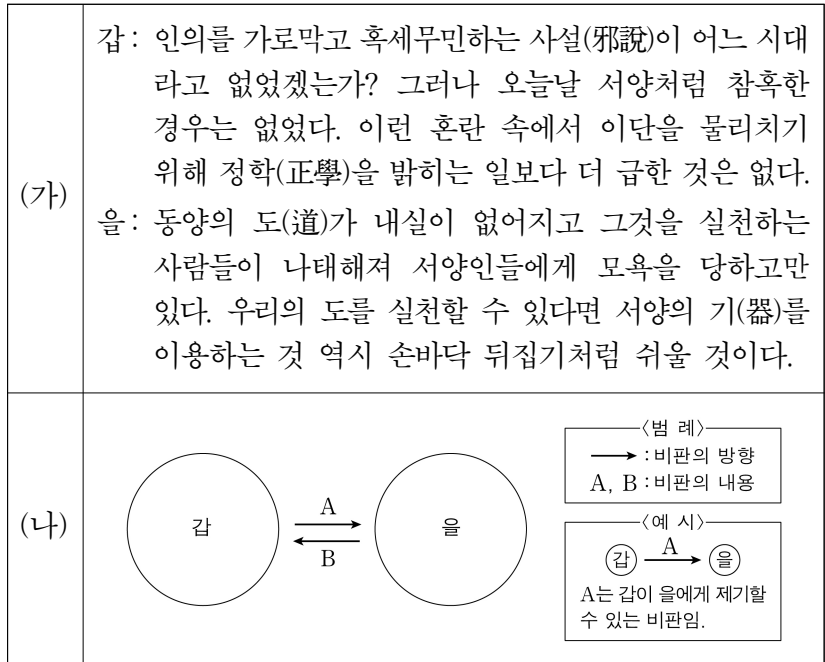
을: 인간의 지성을 사로잡는 이상에는 종족의 이상, 동굴의 이상, 시장의 이상, 극장의 이상이 있다. 이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 X: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정도
- Y: 이성적 추론의 출발점으로 자명한 진리를 강조하는 정도
- Z: 개별 경험들로부터 일반적 원리의 도출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9. (가)의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도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② A: 서양 문물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B: 서양에 대항하려면 유교의 근본이념을 버려야 함을 간과한다.
- ④ B: 신분 차별을 없애고 남녀를 평등하게 여겨야 함을 간과한다.
- ⑤ B: 효제충신의 실천과 서양 기술의 활용이 공존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0.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한쪽에서는 쾌락의 총량을, 다른 쪽에서는 고통의 총량을 합산해 보라. 만일 그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을 개인들의 총수 또는 공동체와 관련지을 때 일반적으로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을: ‘최대 행복 원리’를 따를 경우,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때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최대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보 기〉

- ㄱ. 옳은 행위는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최대로 증진하는 것이다.
- ㄴ. 공리의 원리는 개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적용된다.
- ㄷ. 쾌락에는 그 양의 많고 적음을 사소하게 만드는 질적 차이가 있다.
- ㄹ. 사회 전체의 행복은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총합을 초과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1. (가)의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마음[心]에서 언지 못하면 기(氣)에서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호연지기를 잘 길러야 한다.
 을: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로 들어야 한다. 기는 텅 비어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직 도(道)만이 텅 비어 머무니, 텅 비게 하는 것이 심재(心齋)이다.

(나)

<보 기>
 ㄱ. A: 잃었던 마음(放心)을 되찾아 도덕적 인격을 완성해야 하는가?
 ㄴ. B: 의로운 행위를 쌓아서 도덕적 기개를 키워 나가야 하는가?
 ㄷ. C: 마음을 깨끗이 비워 물아일체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ㄹ. C: 기(氣)로써 듣는다면 세속적 얽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서양 사상이 갑이 <문제 상황> 속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을 서술하시오.

갑: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그것이 제시된 어떤 목적들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다. 즉, 선의지는 그 자체로 선하다.

<문제 상황>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교한 답변을 빠르게 생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의 문제, 허위 정보 생산 등의 위험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연구자 A는 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도덕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 학생 답안
 갑 사상은 A에게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 그 자체로 목적적 존재인 인간을 고려하고, ㉢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야 함을 조언할 것이다. 또한 ㉡ 의무 의식에 위배되더라도 다수에게 도움이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하고, ㉣ 이 세상 안에서나 밖에서나 무제한적으로 선한 선의지에 따라 사용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그런데 ㉤ 의무가 문제시될 때에는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얻게 되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라고 조언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평화를 창조하는 일은 폭력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치료해야 할 폭력은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가 있는 직접적 폭력이고, 예방해야 할 폭력은 그러한 행위자가 없는 구조적 폭력이다.
 을: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위한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해 있는 많은 이웃 국가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이 상태가 그 자체로 전지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초강대국 아래로 여러 국가들이 통합되는 것보다 낫다.

- ① 갑: 비의도적인 폭력의 제거 없이도 적극적 평화가 완성될 수 있다.
 ② 갑: 문화 속의 일부 상징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③ 을: 영구적인 평화의 실현은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와 무관하다.
 ④ 을: 평화 실현을 위해 국가의 주권이 평화 연맹에 양도되어야 한다.
 ⑤ 갑과 을: 국가 간 전쟁 행위 중지만으로도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

14.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뜻이 있는 곳이 사물이다. 뜻이 부모 섬김에 있으면 그것이 사물이다. 그래서 마음 외부에 사물이 없다. 『대학』에서 말하는 '명덕(明德)을 밝힘'은 단지 성의(誠意)일 뿐이다.
 을: 격물(格物)할 때나 성의, 정심(正心)할 때 모두 거경(居敬)함으로써 수행해야 한다. 모든 과정에서 각성하고 붙잡아 이 마음이 언제나 보존되어야만 비로소 경을 지킬 수 있다.

<보 기>
 ㄱ. 앎으로서의 지(知)와 실천으로서의 행(行)은 본래 하나인가?
 ㄴ. 이치에 대한 궁구 없이 치지(致知)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ㄷ. 도덕 법칙을 밝혀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가?
 ㄹ. 격물을 통해 천리를 보존하고 사된 욕구를 제거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고대 서양 사상이 갑, 근대 서양 사상이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자연의 원리나 신의 섭리를 벗어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필연은 질서 정연한 우주의 안녕을 위한 것이며 너 자신도 우주의 일부분이다.
 을: 자연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작용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 ① 갑: 공적인 삶과 의무를 도외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② 갑: 모든 정념을 제거하고 자연의 본성인 이성을 따라야 한다.
 ③ 을: 지복은 인격신의 계시를 받아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④ 을: 삶에서 유익한 것은 이성을 최대한 완전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⑤ 갑과 을: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할 때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四聖諦]를 보지 못한 중생들은 무명(無明)에 가려지고 욕망에 묶여 내달리고 윤회하면서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기도 한다. 이것은 막대기를 허공으로 던지면 어떤 때는 아랫부분부터 떨어지고 어떤 때는 윗부분부터 떨어지는 것과 같다.

<보 기>

- ㉠.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팔정도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 현세와 달리 내세는 자신이 지은 업(業)의 영향을 받는다.
- ㉢. 중생이 겪는 고통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 ㉣. 중생이 번뇌를 끊고 해탈하면 더 좋은 생(生)으로 윤회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7. 사회사상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여기에서는 노동 분업에 의한 개인의 노예적 종속이 사라지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도 사라진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경제는 안정적이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을: 여기에서는 성인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노동에 종사하며 빈곤도 없고 낭비도 없다. 또한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어 집마다 자물쇠를 채우는 일은 절대로 없다. 집은 제비를 뽑아서 10년마다 바꾼다.

- ① 갑: 노동은 삶의 창조적 활동이 아니라 생계 수단일 뿐이다.
- ② 갑: 기술적 분업의 확대를 통해 노동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
- ③ 을: 화폐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 ④ 을: 구성원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만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
- ⑤ 갑과 을: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해 개인의 참된 자아가 실현된다.

18.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사단이 드러날 때 진실로 기(氣)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맹자가 가리키는 것은 실제로 기에서 발(發)한 곳에 있지 않다. 만일 기를 겸해서 가리켰다면 그것은 이미 사단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을: 사단은 진실로 기를 따라 드러난다. 그러나 기에 가려지지 않고 직접 나타나기에 이(理)의 발이라고 말한다. 칠정 또한 진실로 이가 탄다. 그러나 기에 의해 가려지기 때문에 기의 발이라 말한다.

- ① 갑: 공리와 거경의 수양으로 본연지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 ② 갑: 이는 기와 달리 형체가 없어서 기의 발에 따를 수밖에 없다.
- ③ 을: 이는 기의 근원이지만 기에서 독립하여 홀로 존재할 수 있다.
- ④ 을: 정(情)의 연원은 같으므로 일반 감정은 도덕 감정을 포함한다.
- ⑤ 갑과 을: 인(仁)은 이가 발한 것이지만 측은지심은 기가 발한 것이다.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그러나 이성은 인간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규약들인 자연법을 제안한다.</p> <p>을: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일 뿐이므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p> <p>병: 통치자가 피치자의 자유, 생명, 자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민의 저항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인민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p>
(나)	<p><법 레> →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p> <p><예 시> ① 갑 → A → ②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① A와 F: 자연 상태에서 자유와 권리를 지닐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② B: 계약 당사자에게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 법에 대한 복종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임을 간과한다.
- ④ D: 사회 계약의 목적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간과한다.
- ⑤ E: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20. 고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가난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아테네의 정치는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통치되는 민주정이다.

을: 국민의 역할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은 자신들의 정치 지도자의 재선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를 지지하는 의회 다수당의 과반수 확보를 저지하는 방법 이외에는 어떤 통제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갑: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모든 정책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
- ② 갑: 민주정에서는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른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받는다.
- ③ 을: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방법이다.
- ④ 을: 시민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시민은 정치 현안에 대해 언제나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